

뇌물로 받은 땅 '나눠먹기'

군수 친형은 인허가 개입 3억 든 가방 배달

화순군 '비리 복마전' 군민들 충격

화순군 안팎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주민 4명 등이 줄줄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화순지역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특히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갖가지 공사 인허가나 수의계약 등에 개입해 금품은 물론, 역대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을 받아 챙긴 다양한 수법에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

돌던 전·현직 공무원들과 군수의 친형 전모(65)씨 등의 각종 비리 혐의가 사실상 드러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화순군 전·현직공무원들의 비리 내용과 수법 등을 살펴보면 화순군의 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리의 온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67)씨와 전 화순 부군수 최모(60)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국고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의 지원사업자로 조모(54)씨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 부적격자인 조씨의 청탁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역대의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를 받은 뒤 부인 명의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모(45)씨 등 현직 공무원 5명은 공사감독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뒤 골프장 부지를 차명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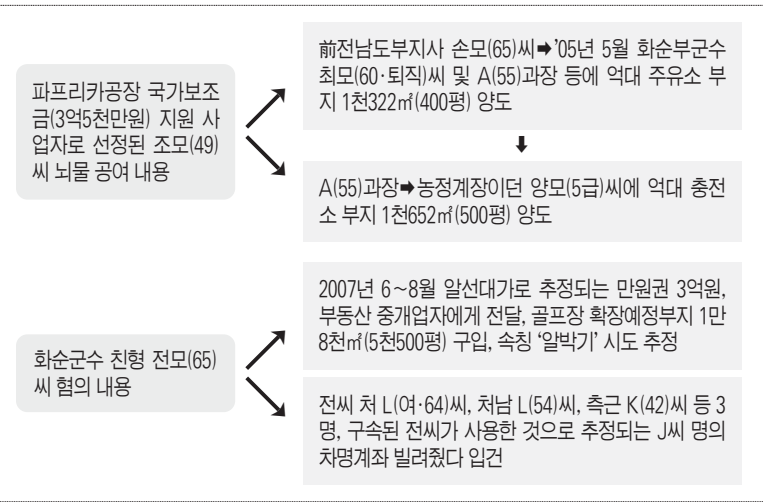
이들은 또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7천6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

혔으며, 하수관거·광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납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의 형 전씨의 추가 비리 의혹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씨는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2007년 6월께 화순군 동면 B골프장 예정부지 1만8천㎡를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땅값 3억원을 옛 1만원권으로 스포츠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가 군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인허가와 직원 특채 등에 개입하고 받은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비리 규

화순군 공무원·군수 친인척비리 혐의 내용



모는 수사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속칭 '일박기'를 통해 재산이득을 챙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건에는 전씨의 아내와 처남, 차명계좌 명의자인 사촌 동생 등 전씨의 가족과 친척이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화순군수의 친인척 비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전씨는 이미 납골당인·허가와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4천만원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어서 군정 비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향후 수사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생인 현 화순군수가 혐의 비리사실을 알았는지 등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콩나물 교도소' 장애인 고통

인권위 광주교도소 조사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장애인들이 극심한 과밀수용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도소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광주교도소 장애인 혼거실에 수용된 수감자는 62명으로, 수용인원(48명)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도소의 장애인 수용률은 129%로, 전국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평균(108.6%)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삼각동 이전에 대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971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북구 문흥동으로 이전했으나 시설 낙후와 과밀수용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노후 교도소들도 비슷하다. 광주와 군산 교도소 등 전국 8개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가운데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 교도소 5곳의 평균 장애인 혼거실 수용률은 130.5%에 달했다.

나머지 신축 교도소 3곳의 평균 장애인 혼거실 수용률은 69.1%로 상대적으로 장애인 수감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

완도 40대 집에 불질러 노모 숨져

완도경찰은 19일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아들 손모(48)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8일 밤 11시께 완도군 고군면 총무리 자신의 집 안방 이불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어머니 이모(7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5년 전 빚 보증을 섰다가 5

천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졌으며 이후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부인 등과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부인과 아이는 외출한 상태였다. 손씨는 범행 후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손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한국 친정 엄마 생겼어요"

19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이주여성 친정 엄마 결연식 및 한글교실 개강식'에 참여한 이주여성 등 100명이 결연을 맺은 친정 엄마와 다정하게 사랑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북구청이 이주여성 정착 지원과 주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회 화단서 50대 男 피살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의 한 교회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H교회 주차장 입구 앞 화단(폭 1m, 높이 45cm)에서 S엔지니어링 직원 김모(50·광주시 북구 중흥동)씨가 얼굴에 파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교회 집사 남모

(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왼쪽 눈과 귀 사이를 둔기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다.

김씨는 전날 밤 8시30분께 직장 동료 1명과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이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인 김씨는 3~4년 전 동거녀와 헤어진 뒤 결혼 혼자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흔이 묻은 2~3cm 크기의 벽돌 조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의 현금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기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민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남 횡령 보조금 11억 수급자에 돌려준다

해남군에서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만간 복지급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19일 "11억원의 복지급여를 빼돌려 구속된 장모(39·7급)씨가 담당했던 복지급여 수급자 214명에 대해 정밀 재조사를 마치고 변제금액을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변제금액을 확정하고 확보된 장모씨의 현금 등의 채권과 부동산을 경매해 이틀 시일 내에 지급, 주민들의 불신을 해결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밀입국 중국인 28명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19일 국내 어선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신안군 자은도 북서방 약 4km 해상에서 목포선적 10t급 연안자망어선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배로 실어 나른 선장 정모(53)씨와 선원 김모(43)씨 등 목포지역 선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정성윤 목포지청장 취임

정성윤(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취임했다.

정 지청장은 담양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2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아파트서 여성 속옷 훔치다 '덜미'

○30대 회사원 이빨래 건조대에 걸린 여성 속옷을 훔치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19일 가정주부의 속옷을 훔친 이모(33·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A아파트 1층 K(여·30)씨의 발코니 유리창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뻗어 건조대에 걸린 K씨의 속옷 1점을 훔친 혐의.

○이씨는 속옷을 훔쳐 외부 주머니에 넣은 뒤 한나를 더 훔치려고 손을 뻗다가 거실에서 이를 알아챈 남편(37)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술만 마시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